

잡아함경97. 걸식경

날짜: 6월 12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726>

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. 그 때에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국으로 들어가 걸식하시었다. 때에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. 그 바라문은 멀리서 세존을 뵈옵고 ‘사문 고오타마도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걸식하시고, 나도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한다. 나와 고오타마는 다 같은 비구다’라고 생각하였다. 그 때에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대답하시었다.

이른바 비구는

다만 걸식하는 것만 아니다.

세속의 법을 받아 가지면서

어떻게 비구라 이름하리.

공덕과 허물을 모두 떠나

바른 행을 닦고

그 마음에 두려움 없으면

그를 곧 비구라 부르느니라.

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.